

3) 낙안읍성 공격

김인배가 이끄는 영호도회소의 주력부대가 음력 9월 1일 경남지역으로 진출한 상황에서도 영호도회소의 본부인 순천에는 상당한 규모의 농민군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력부대의 후방을 방어함과 동시에 치안유지와 폐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력이었다. 또한 농민군의 보급로와 군수품의 확보라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었다.

영호도회소의 본부에서는 군량과 옷·신발 등을 각 지역에 할당하여 징발하였으며, 부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얻어낸 경우도 있었다.¹⁾ 그런데 순천과 인접한 낙안군은 영호도회소의 지시에 거의 응한 적이 없었다. 음력 9월 15일(양 10. 13.) 양하일은 중간지점인 선암사에 1,000여 명의 농민군을 집결시켰다. 어둠이 깔리자, 농민군은 선암사를 출발하여 낙안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야간에 기습공격을 단행하였다. 낙안군수 장교준(張教駿)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보고하였다.

(음력) 9월 15일 술시경(戌時頃) 동학배 1,000여 명이 순천 선암사에서 각자 총과 창을 들고서 본군 이교청에 난입, 포성이 진동하였습니다. ... 이튿날 새벽 본읍 의소(義所) 역시 성을 구하고자 성 밖에 취회하여 대치, 18일 미시경(未時頃) 저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화살을 비오듯 퍼붓고 함성이 진동하자 본읍 의소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 19일 신시경(申時頃) 그들은 군기고를 방화한 다음 서문을 열고 대부분 선암사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각 마을로 흩어져 들어갔으나, 아직 그 피해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듣건대, 저들은 혹 순천점 혹 고산점 혹 남원점 혹 태인점 혹 금구점이라 하였습니다.(『교문서』2, 413쪽)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군은 비교적 손쉽게 낙안읍성을 함락하였다. 이에 낙안군수 등의 수성군은 이른바 의소를 만들어 다음날 다시 낙안읍성을 차지하려 하였으나, 농민군의 방어가 견고해서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군수품을 확보한 다음 선암사로 유유히 퇴각하였다.

이들은 이교청의 각종 문서를 꺼내어 소각해버렸으며, 저항한 민가 149호를 불지르고, 빼앗은 군수품은 농우 55마리, 의복과 기물 등을 우마로 50여 바리와 40여 명이 짊어지고 돌아왔다. 요컨대, 영호도회소는 낙안군을 공격하여 기대한 만큼의 군수품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1)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상, 1959, 680쪽.